朝鮮日報 朝刊

社說 同盟外交의 流行 —第二大戰에의 準備工作—

一

現下 世界外交界에 잇서서 가장 注目을 끄는것은 同盟外交의 流行이다。獨逸이 墺太利를 끌어당기라다가 失敗에 歸한後, 或은 波蘭을 끌어보기도하고, 유-고슬라비아에 秋波를 보내기도하야 盛히 나치스의 支援者, 同盟者를 求하고잇는것은 世人周知의 일이어니와, 이 獨逸에 對抗하기 위하야 伊太利가 墺太利와 親善關係를 기피하고 佛國이 蘇聯과 거이 公然한 秘密同盟을 매즈며 小協商國及 발틱海岸諸國을 집어너어 七國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라하며 米國이 蘇聯과 國交를恢復하고 日佛緊密關係에入하는것은 도한 顯著한事實이다。이박게 墺太利와 匈牙利, 蘇聯과 中國과의 同盟說, 英國과 佛國과의 同盟說等 實로 實爲하다。

二

國民外交대신에 秘密外交가 聯盟外交대신에 同盟外交가流行하게된것은 列國의政治道德이 反動化한것을 意味한다。一堂에모혀 國際關係를 討議하기를 忌避하고秘密로 各國間에 外交하는것이 이미陰謀術策이 잇는것을 表明하는것이어니와 各國의 輿論이 一致되기를 바라지안코 各個로外交를 展開하는것은 必然이 一二의 他國家를 相對로하는것으로 이곳에는 또한 반듯이 敵對感이 作用하고잇는것을 알수잇다。歐洲大戰後 獨逸을 中心한 墺伊의 三國同盟과 英佛을 中心한 聯合戰線이 展開되든것을 想起하면 現下 世界政局의 同盟外交의 眞相을 推測할만하다。

三

그러면 이 同盟外交는 무엇을 目的코 流行되는가。經濟的展開인가, 軍備擴充인가, 或은 武力行使인가, 同盟이란것은 自己의後援者支持者다。現下 各國情勢는 모다 各國과의 關係가緊張하야기때문에萬一의 境遇를 생각할때엔 軍備擴充이必要하고 軍備를 一國이擴充하는것보다는二國, 三國이合同하야 擴充하면 幾倍의 勢力을 어들지니, 一國의軍備擴張外에 同盟外交가展開되는것은當然한 趨勢다。非常時와同盟外交는 附隨物이다。

四

現下 同盟의 聯系로보면아즉完全히 結成된것이아니다。佛蘇, 米蘇, 墺伊의 同盟은거이 決定的事實이나 반듯이一旦有事之秋에 반듯이 結合되리라고 밋기 어렵고, 獨波, 蘇中, 其他의 同盟은 더욱稀薄性이적다。왜그러냐하면佛蘇, 米蘇間에는 國體, 政體가 다를뿐아니라 政治的, 經濟的 利害關係도 꼭 符合하지안는때문이다。그러나 現下 어떤 相對國을, 相對로 國家는 結合乃至 同盟을 [illegible] 思想을 가젓고, 또 어떤態度로 人氣投合한것도 事實이다。오직 從來의感情과 利害關係가 相合지 못하기때문에 完全한 結成을 못보앗슬뿐이니, 이것은 早晚間 宋大한 目的을 爲하야 完成될것이 事實이다。

蘇加入可決은確實 總會는十日開催
佛國은波蘭脫退不拘코支持
東歐相助條約은難題

動하는三國聯

【電通巴里三日發】蘇聯邦 正式聯盟加入申請이 잇스리라고 豫想하고잇는國際聯盟理事會는 九月七日의總會를 同十日에開會키로 되엿는데 權威잇는側에서 確聞한바에依하면 蘇聯의聯盟加入申請에 對한手續은 只今依然 完了되지못하엿스나 總會에서는三分之二의 多數로써可決될것이 確實하다고잇다 그리고蘇聯이 聯盟에加入하면當然常任理事國이 될것으로豫想되야이에 對抗키爲하야 波蘭이 常任理事國의椅子를 要求하고잇는데 佛蘭西로서는 波蘭의要求를支持키에 努力할것이다 그 以上의反對가잇서 實現되지안는境遇에는假令波蘭이聯盟을 脫退하더라도 蘇聯의常任理事國이될것을 主張하야 佛蘇提携하야 聯盟을 리드하여가리라고 觀測된다

【電通巴里三日發】佛國에서 提唱하는 東歐相互援助條約은 獨逸의 反對가 强硬한데다가 右는 佛蘇同盟의 카모프라쥬라하야 列國의猜疑心을 招致하게되며 實로 薄弱하게되엿다 佛國은 此를 자못 憂慮하고잇는데 萬一 流產되면 佛, 蘇, 발틱諸國, 체코슬로바기아, 루마니아等相互援助條約締結에 努力할 模樣이다 그러나 이것도 東歐條約과異體同心임으로 同一한 運命을 當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米、丁兩國領事 警備方面에 對策陳述

【電通哈爾賓三日發】米國메드로-물드린氏等二名救出에對하야 米國領事와 丁抹領事는 三日午前若山○隊特務機關과海軍防備隊總領事館을 歷訪하고 救出을 懇請하엿다

英國對日態度에 佛國도同情的態度

【電通巴里三日發】一時世界의 外交界를 衝動식힌日英同盟復活說은 兩國政府當局의否定에依하야 沈默되엿는대佛國側에서는 同盟復活說은 無根하다고하더라도 最近英國이 滿洲事變勃發當時의 態度를 變更하야 極東의既定事實을 基礎로하야 對日接近을圖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라고하야 英國의 對日態度를 注視하고잇는데 이에對하여오히려 同情的態度를取하고 잇다 即佛國으로서는 對獨政策上 蘇聯에 接近하고 잇는데 他方蘇聯이 歐洲의 國際的地位確立을 機會로 極東에서의行動의 自由를 獲得할것을憂慮하야 英國이 對日接近을 圖하야 蘇聯을牽制함은 잇슬듯한일이라고하고잇다

日米建艦競爭은 有害無益
米上院議員指摘

【電通華盛頓一日發】上院彈藥調查委員會는 一日부터三週間開催되는데 同委員會委員長 베스라스州選出, 共和黨員上院議員데볼드•나이氏가 日米間의建艦競爭에合衆國은 軍事豫算에잇서日本의二倍에達한다 그리고도 米國議會는다시十億弗의追加額을 承認할것을說破하야如斯한建艦競爭은結局兩國의 武器製造業者의주머니를 불르게할뿐으로兩國에는 何等利益이업다고如左히論하엿다

米國今年度의陸海軍豫算은日本의二倍에達한다 그리고議會는이事實을이저버리고海軍追加豫算二十億弗을承認할것이다右軍事費는日本의對米建艦競爭에 對抗키爲함인데日本도亦是이를看過할理업고또 軍事費를 增額하야 엉뚱한 에쪼처갈努力을繼續할것이다 如斯한建艦競爭結果는武器製造業者에 利益을줄뿐이다特히루-스벨트大統領의 所謂日本과의 存在할 戰爭危險이 라는것을 再考할時如斯한建艦競爭이如何히 惡劣하고常軌를 버서난것인것이 判明될것이다太平洋을끼고兩國의海軍專門家의壓倒的多數의意見은兩國間의戰爭은 結局何等結果도 맷지안흘것으로 兩國間에 存在하는 戰爭危惧의 思想은 結局習慣的憂慮에不過하다고한다 그리고 나이氏는上記演說에 一般에서는루-스벨트大統領의 인을잇스나 直接그의말을利用하야자못注意를하엿다

資本家側에서는 斷然組合에對抗
今次罷業은반다시失敗한다
米織物協會長憤慨談

【電通華盛頓二日發】米國未曾有의織物大罷業은 一日夜부터開始되엿는데 織物協會長반보氏는 二日綿織物組合長고만氏와會見하고 勞働者側의態度를聽取하엿는데 會見後組合이 取하고잇는 戰術에 憤慨하야左와如히말하엿다

今次의 罷業은반드시失敗할것이다資本家側은 斷然組合에 對抗하야 此와協定을締結하지 안흘것이다 忠實한勞働者에對하여는適切하고 또 秩序잇는 手段으로도 勞働條件을 改善하여가겟다

墺國나치스暴動의자최 (上) 나치스一團이아나운서에게 돌푸스內閣倒潰放送을强要한 新也納放送局의 森嚴한警戒 (下) 暴動에 加擔하엿든 나치스黨員을 收容한 廳所附近의警戒

海軍大演習의 經過公表
三日海軍省에서

【電通東京電話】海軍大演習終了에關하야 海軍省은演習의經過艦隊의 其後의動靜에關하야 三日如左히公表하엿다

一、八月一日大演習開始以來百武中將麾下의 第四艦隊는豐後水道有明灣方面에서 灼熱의太陽下에 炎暑를물리치고 敏速한 實力練習을繼續하야 猛訓練에終始하엿는데 八月三十一日別府灣에入港하엿다

一、同隊는九月二日別府灣을出港하야小松島에가서 同地에서伏見軍令部總長殿下의 御巡視를 바들豫定이다

一、橫須賀, 佐世保兩鎭守府, 鎭海, 馬公의兩要港部에서는 各其十月의對抗演習을 압두고 局地防禦航空演習等의諸訓練에 灼熱의 意氣로써從事中이다

一、第四艦隊는 九月上旬伊勢灣에寄港하야 神宮參拜를行하고 九月下旬에佐世保軍港에一旦入港하야 陣容을整齊한後 第二期演習에들어갈豫定이다

日英兩國의接近은 英蘇對立의一環
獨波兩國軍事同盟說은疑心
◇……外務省某權威談

日英接近說이 流布되여各方面의 神經을날카로이하고잇다는데 이問題에關하야外務省의對蘇英權威의意見을 探問하면 日英接近을 가장꺼리고잇는것은 蘇聯邦이라는것은 輿論을不要하나 事實英國이日本에接近하여오는것도 歐洲에 잇서 佛國과히게모니-를다투기爲함이안이다 中那其他에잇서 英, 蘇의史的對立의 一連鎖라고觀察할것이다 蘇聯當局은 如何히對英關係가好轉되엿슬時에도 恒常反蘇戰線의 司令者를英國으로보아왓다 따라今回의日英接近說에 對하여도蘇聯側은日英國의反蘇傾向의裡面에 伏在한 英國의本質이 또다시表面化한것이라고觀測하는모양이다 다음에獨波兩國의 軍事同盟說이蘇聯에게서 問題되여잇는데此等은疑心이다

長谷川海軍次官 外務省訪問

【電通東京電話】長谷川海軍次官은 三日午前十一時外務省을訪問하고 廣田外相, 重光次官과 會見한後 今週閣議에 決定될海軍軍縮對策原案에 關하야 第二回째의 協議를거듭하고 字句修正其他에關하야 重要協議를하엿다

米穀顧問會議 決局散會

【電通東京電話】米穀顧問會議는 三日午後二時再開하야結局米穀對策의本論에 抵觸치안코 同五時散會하엿는데 主要한意見은左와如하나

一、最低公定價格決定에對하야 十二月以降은 每月金利, 保管料를加算하기로 決定하는것이如何

一、出廻期의賣渡殺到를防止키爲하야 特히低資融通을行함이如何

一、米의輸出獎勵에여터한特別施設을行하야米의消費增進을圖함이如何

米穀事務所長 會議開催

【電通東京電話】農林省은新米穀年度의 米穀枚付를決定키爲하야來五、六兩日에 亘하야 米穀事務所長會議를 開催하기로決定하얏다

大整理案撤回要求 電氣局長에提出
全從業員의生死問題이라고
東京市電從業員爭議

【東京電話聯合】大整理案發表에依하야 正面衝突의危機에瀕한 東京交通勞働組合에서는 三日午前十時半부터 築地별당內의 本部에緊急實行委員會를열고代表를 내어內務, 陸, 海軍三省及 首相官邸를歷訪陳情하는一方, 河野爭議部長外三名은 正午電氣局에赴하야 山下局長과會見하고 如左한要求書를提出하엿다

『今日의電氣局의發表한大整理案은 全從業員에餓死를 强要하는것으로 我等의斷然承認할수업는바이다 外則 이의即時撤廢를要求함』

【電通東京電話】築地별당內의 東京交通勞働組合本部에서는三日午前十時半부터 市電更生案對策을取하야 緊急委員會를 開催코協議한結果 熊本委員長以下二名의執行委員은 首相官邸及 陸, 海, 大藏三省에赴하야 今次의市電更生案에反對치안홀수업는 事情을述하고 도從業員主張에對하야 同情하기를陳情하야 諒解를求하엿다

日滿人三名拉致
反滿軍四十名

【齊齊哈爾三日發】北安鎭附本街米倉煉瓦工場 支配人野村直次郞家에 二日午後十一時半頃首領天邦이引率한四十名의反滿軍이來襲하야金品多數를掠奪하고同居人 河田富一氏外日本人一名及 滿洲國人一名을 人質로拉致하고 通北方面으로逃走하엿다

齊北線新屯에 反滿軍出現

【電通奉天三日發】去一日午後二時頃 齊北線新屯驛西北方四粁되는地點에 百名의反滿軍이나타나 鐵道線路로 向하야 進行中이라는 報를接하고泰安守備隊의○○名은 直時出動交戰一時間餘에 此를擊退하엿는데反滿軍은 死體四十을遺棄하엿다 高橋伍長, 平井一等兵兩名은戰死하엿다

北鐵東部線에서 又復貨物車顚覆

【電通哈爾賓三日發】三日午前十一時北鐵東部線高嶺子, 橫道河子間에서 哈爾賓, 第二十九號貨物列車는 反滿軍이軌道를떼여 脫線顚覆케하는同時에襲擊을바덧다

從業員의動向에 內務當局은靜觀態度

【電通東京電話】東京市電의大整理案과從業員의動向에對하야 內務省은 同問題가直接市民生活에重大影響을 及하는만큼勞働政策上及治安維持上重要問題를發生할것으로 其推移를極히憂慮하고 爭議勃發의適當한對策에對하야 여러가지로考慮를行하고잇는데 內務當局으로서는 目下形勢가極히微妙함으로一切意見發表를避하고 推移靜觀의態度를取하야 今後推移如何에依하야 或은調停其他의方法도 講究하려고 萬全의策을考究하고잇다

東京廿三組合 徹底的應援을 決議

【東京電話聯合】東京電氣局의整理案에 對하야 斷然爭議하기로決定한 東京交通勞働組合에서는 他組合의 援助를要求하게되여 東京市從業員組合以下二十三組合에招待를發하야 三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日比谷東洋軒에서會見하고 援助를求하엿다 東京交通側에서는 鬪委員, 辻, 鈴木等四十五名이 出席하야 組合代表者에게 紛議의 經過를 報告하고 徹底的應援을 決議하고 四日午後二時부터 神田市 從業員本部에서 第一回 會議를 開하기로되엿다

民政黨米穀委員會 米統制原案承認
政民連絡委員會開催

【電通東京電話】民政黨은 三日午後一時半부터本部에서 米穀對策特別委員會를開催하고 昨日發表한 米穀統制案의要綱을附議하야 質疑應答한後 特히 運用條項中「供給不足時에政府가 取할 機宜의 處置」라는 文句를追加하고 더욱左의二項을附議하야 原案을承認하기로決定하고 同五時散會하엿다

一、海外販路開拓과 新規利用의 研究를 進行할것

一、政府는 速히肥料政策을 樹立하야 生產費의輕減에 資케할것

右結果 民政黨은 四日午後幹部會에 報告하야 諒解를求하고 政民協議하야 民政黨側의 政策協調委員과 政友會의 若宮幹事長에對하야 米穀案을 手交하고 될수잇스면 同日中에 政民兩黨의 連絡委員會를 開하고 急速實行할意向이다

在滿機構改組에 三省會議開催

【電通東京電話】在滿行政機構改革에關하야 岡田首相의 命을 바더 解決의 第一步를 내여 도되겟는데 從來方法을 一變하야 새로 陸軍, 外務, 拓務三省의 關係局課長을 一堂에 會同케하야 忌憚업시 意見을 交換케하기로되여 四日午後二時부터法制局에서 河田法制局長官, 外務, 拓務, 陸軍의 關係局課長을 招集하야 會議를 開하기로되엿다 그러나 依然 各省은 自省의 方針을 極力支持하야 三省의 意見을 達하고잇슴으로 今回의 會議에서도 本案의 解決은 자못 至難하리라고 觀測된다

華府條約廢棄通告 卽時斷行을要望
對策決定된以上躊躇必要업다
聯合艦隊方面의意見

【電通東京電話】日本政府의 明年海軍軍縮會議에 對할豫備交涉은 드듸여오는四日又는七日의 定例閣議에서 決定하기로되엿는데 其中日本新軍縮方針을가장率直히하고 또한決意를簡單히表明하야 그主張貫徹에 資할手段으로 重要性을 띈 華府條約廢棄通告時期에 關하여는 이를全部廣田外相에一任한다고 傳하며 或은廢棄通告는十一月中旬以降十二月中의 適當한時期에 行하리라는說이 流布되고잇는데 海軍側에서는 政府의對策이決定된以上 可及的速히豫備會商開始前에 斷行할것이라는 强硬意見을 固持하야 廢棄通告의即時斷行에對한 廟議決定을 要望하고잇다

一、比率主義軍縮을 撤廢하고 均衡軍備主義의 新軍縮方針으로써 軍縮의目的을 達成코저하는 日本政府의 軍縮對策決定은 必然的으로 華盛頓海軍條約廢棄를 意味하는것인즉 對策決定後에 廢棄通告에 猶豫를 두는것은 無意味하다

一、空然히 協和外交의 美名下에 政府對策決定後 다시 廢棄通告時期를 기다리어 決意表明을 躊躇하는것은 國際間의 疑惑을 招來하야 日本의 立場을 不利케할 念慮가잇다

一、日本의 專門委員未着을理由로 倫敦의 豫備交涉을 延期한것은十月再開의 豫備交涉이 軍縮의 原則論에들어 갈것을 表示하는것이다 萬若華盛頓條約廢棄通告를 하지안코 豫備交涉에 臨할時는日本은 華盛頓條約의 存續을 希望하는것으로 認定된다 倫敦條約은 華盛頓條約의延長이고 五, 五, 三의 比率은華盛頓條約에서 決定한것인즉 比率更改의 理由를들지안하면 米國이 高踏的態度를取할것이必然하다

一、華盛頓條約 廢棄通告의 權利를行使하야만 日本은그 旗幟를 闡明히하야 旣存條約에서 脫却하야 自由로운 立場에서 斷乎히所信貫徹에 邁進할수가잇다 對策을決定하야軍備의自主平等을主張함에는무엇보다도먼저 不平等條約으로부터脫却함이조타

一、世界에서는 華盛頓條約의 廢棄通告는太平洋防備制限協定廢棄가되야 이는日本에不利라고 宣傳하는者도잇스나 防備狀態가如何히되고 根據地가如何히擴大되더라도조금도問題가안되다 自衛를主로하는 日本海軍에 對하야 問題되는것은 그根據地에잇는 米國艦隊이다

이가튼全海軍의要望을 大角海相이如何히閣議에反映식히고 岡田首相, 廣田外相의如何한態度를取할는지 廟議가如何히決定될는지에對하야 海軍側은非常한關心을가지고 警戒하고잇다

大藏省主計局 新豫算編成
本格的으로進行中

【電通東京電話】明年度豫算에對한大藏省主計局의編成工作은九月부터 드듸어本格的으로되야 國防과農村救濟와에重點을둔 非常時財政의 具體化는이에第二段的段階에들어갓다 今日까지提出된 新規要求額槪算은約十二億圓으로 이것을基準豫算十六億五千萬圓에 加算하면明年度豫算槪算額은二十八億五千萬圓에達한다 그런데이膨大한歲出豫算에直面하야그財源이되는歲入方面에서는假令基準歲入十三億一千二百萬圓, 自然增收一億三千萬圓, 剩餘金一千八百萬圓이라고치더라도 總額이겨우 十四億六千萬圓에 不過하야 差額의 十三億九千萬圓程度는 歲出의過大가되는셈이다 따라主計局으로서는 이査定에當하야 될수잇는대로歲出의 節減을行하야 新規要求額에 對하야 四億圓程度만 承認할意向을가진模樣인데 四億圓으로 査定한다하더라도 總額二十億五千萬圓에達한다 그리고陸海軍을爲始로各省의猛烈한要求運動은新規要求를四億圓에 끗치게할는지疑問으로豫算編成의進行에따라그의增大는 數字的으로보아 必然의形勢인즉 歲入의缺陷은 더욱顯著히될것이다 그리고 公債發行額에는 自然限度가잇서서 財源의大半을公債에求하게되면 財政은破綻을未免케될것임으로 主計局에서는

一、新規要求의嚴格한査定

一、公債消化力의測定

一、新規財源捻出

에關하야 非常한苦心을다하고特히 新規財源捻出에關하여는 增稅實行이 明年度에는 困難타고하더라도 다른 新財源에依하야 公債發行의減少에 充當코저目下全力을다하야 調查中으로 今後査定進行에따라各方面의增收策은漸次强調될것으로觀測된다

總督府明年度豫算 新規八割은削減
確定된新規要求內容

朝鮮總督府 明年度豫算案은 一億一千萬圓이라는 膨大한新規要求額을 財務當局에서査定을急히하야 緊急不得已한事業費以外에는 一切承認치안을方針에서容赦업시 斧鉞을加하야 要求額의八割까지는 削減하게되엿다 査定案은去一日부터 政務總監手許에서 最終審議를行하고 今三日부터 各局에提示하야 折衝을開始하엿는데 各局의復活要求는 猛烈히展開되게되엿다

總督府明年度의 政策事業인滿洲移民計劃, 鮮種國營案其他土性調査砂防水產關係事業等의 新規要求는 最後的決定을保留하고 災害關係以外의 新規의 道路河川改修計劃는 一切容認치안코겨우 港灣更新改修, 不良水利組合整理, 災害復舊等이 明年度新規要求事業中確定된 主要한것인데 其內容은左와如하다

▲港灣改修

九個年繼續千四百七十八萬圓 (原案은三千萬圓) 仁川, 釜山, 麗水各港及淸津漁港의 修築을內容으로明年度計上額은百七十萬圓이다

▲不良水組整理

六十九組合中事業解散을命할五組合中明年度 四組合을解散하고도三十五組合에 對하여는改良工事補助三百萬圓豫算으로明年度六十萬圓을 計上하엿는데 其中蒙利面積三百町步以上의二十六組合에 對하여는 技師等의 俸給을明年度五萬七千圓을補給하야 事業의復興을援助하고나머지 二十九組合에 對하여는 每年三百萬圓의歲入缺陷이 잇는데鑑하야 金利의低下, 償還年限의 延長策을 研究하야 實行케하는데 大十四組合의 責任額은 約三千萬圓이다 水利組合의 負債는 七百四十萬圓을 約二百萬圓을 하엿다

軍縮根本對策 海相決意披瀝

【東京電話聯合】倫敦海軍軍縮會議에 臨할日本政府의具體的根本對策에關하여는 去月二十八日岡田首相, 廣田外相, 大角海相이 協議한結果完全히意見이 一致되엿슴으로 海, 外兩事務當局에서이를基礎로 折衝을進行하든中 大角海相은 對軍縮會議具體案은華府條約廢棄斷行에 依하야 大한意義를有함에鑑하야 三日午前十時十分林陸相을陸相官邸에 訪問하고 者三閣僚協議會에서 意見이一致되던根本對策案의 內容을詳細說明하고 一九三五, 六年의國際危局에 臨할 斷乎不動의決意를 披瀝하야 諒解를要求하엿는바 林陸相은 이對策에關하야 滿腔의 贊意를表하고 海相을激勵하엿다 同五十分辭去하엿는데 種種重要意見을 交換한後 協議決定에앞서 藤井藏相과도 會見하야 諒解를求할터이다

辭令

【電通東京電話】
特命全權大使 佐藤尙武
同 齋藤博
滿洲國及中華民國出張을命함

【電通東京電話】
大阪控訴院長 谷田三郞
停年退職
廣島控訴院長 田中右橘
補大阪控訴院長
札幌控訴院長 長島毅
補廣島控訴院長
大審院判事 霜山精一
補札幌控訴院長

【電通東京電話】
朝鮮總督府營林署
技師 島隆介
任朝鮮總督府技師(七等)
同技手 工藤堯
同技手 若宮敏次郞
任同農林局技師(七等)(各通)

人事·集會

▲橫井時員氏(遞信書記)元山局에榮轉人事次來社

▲浦登氏(馬山郵便局長)新任人事次來社

▲渡邊農林局長 二十日부터開催되는米穀對策委員會幹事로서渡東한渡邊農林局長은 四日夜나五日朝에 京城에 歸任되리라는데 石塚農林技師는 四日午後零時四十分發로 先行키로되엿다

獨逸의나치스 種族廓淸十戒

【伯林發】獨逸의種族廓淸運動은 着着나치스政府의 손으로實行되고잇는대 今回에더욱 하인슈스博士 가起草한 左의十條가發表되엿다

一、獨逸人인것을銘記할것 二、純粹한獨逸人의 血統을가진者는 獨身임을不得함 三、汝의身體를淸潔히하라 四、汝의魂과精神을堅持하라 五、配偶者는 北歐人의 血統을가진者만을 選擇하라 六、配偶者의 祖先을 調査하라 七、健康은 美의 第一條件이다 八、結婚에는 愛를 차자라 九、結婚에際하여는 遊戲의相對가안이라 眞正한 벗을 求하라 十、可及的 子孫을 가지라

鑛山社會兩課 新規事業計劃

財務局査定에 容認된鑛山課社會課의新規事業計劃은如左하다

▲鑛山課
一、特殊鑛物資源調査
一、鑛山現地指導
一、出願增加에伴한職員增加도
燃料選鑛所의新設案은削除되엿다

▲社會課
一、窮民救恤
一、勞働者移動紹介
一、名勝天然記念物保存施設費
一、公益質屋新設獎勵補助
一、靑年訓練所補助

夕刊後의市況

[illegible]

地下三百尺爽凉境 漆闇中에"그로"群像

『칸델라』燈으로어둠을헤치며 鬼氣逼身·黑洞天探險

李相昊記 (一)

기자의 이번기행은 한줄기강물을 복판에두고 나라명목을 달리하고잇는 국경일폭의새다른냄새를 더듬어 맛고저 조선철도의 두개대동맥이 모여잇는경의(京義) 동해(東海) 두간선(幹線)의 허리를 빗그려맨 평원선(平元線)의 중간대목 평남순천(順川)을 기점(起點)으로하야 평북의 심장을돌고다라 나강계만포진(江界滿浦鎭)을종점으로한소위조선 철도십이년계획의 하나로 군사(軍事)와산업을겸처 크나 큰역할을하게될『만포선』 꼬리를 따라서 어머개통을보게된 순천구장(球場)사이 이백리길은 기차로방금공사가 무르녹고잇는 구장, 만포진사이 오백리길은 자동차로만포진부터 압록강천리물길은 신의주까지 배로내려오며 눈서투른 풍물을 보고듯는데로붓자루속에 잡어너헛다는것을 한편이것을 독자에게 미리고한다

딸림어섭업! 열두시간동안기차속에서 흔들든 몸버릇을아즉바로잡지도 못한채로 구장(球場)정거장에서 내리자 땅속금강산이라는 별명을 자랑하고잇는동룡굴(蝀龍窟)을찾지처드럿다

이땅은『약산동대』『넝봉가』로한목을보고잇는 평북녕변(寧邊)땅이다

제목으로결은 국경과는 수백여리가 떠려저잇스나 종아리를『가반』으로 단속한경관들의 허리에는 보선짝만큼식 큼직큼직한권총들이 걸려잇슴을 볼때에 국경냄새가절로코를찔러준다.

○……○

자동차로달린지 약이십분! 묘향산(妙香山)의남쪽줄기의홍모를 토산(土山)허리에 내리자 이삼백메돌 더올다간 산중턱에 큰키로서는머리를 숙이어야 드러갈만한 웅진한 구멍이뚤러저잇다.

길잡이의 지시에따라 굴문때에서 헌옷헌신발로 몸단속을하고 『칸델라』등불을 저마금손에들고는 아파온도의 급격한차로 김이 서리여잇는 굴문어구로빨려드러갓다.

굴문때 들기동에 빗그려매여둔 석줄을잡고 약삼십여도나 급경사가된 비랄을 삼사십메돌이나 고든길로 내려서니 기온은갑작이 내려 그리명랑치못한 찬바람이 몸째하게시리 몸을 휘싸며소름을 기치두룩한다.

벌서밧겻광선은 한줄기 새여들틈이업는 흑동천(黑洞天)! 물빗치라고는 우리들이 들고잇는『칸델라』등人불이 희얏케 서에 가히연계로 생각할뿐이다.

○……○

여기서는 다시술굽은어것서 계우 기어드러갈만한구멍을 나두동지문을만드러 석문제여 두엇다.

이것은 여곳보승회(保勝會)에서이야롯한딴속의『그로』풍경을 천하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입장료어원오십전의받는관문이라고한다.

석굴로를 빠저나온 우마는다 서순어간에 [illegible] 내려다 보아도 맛바닥이보이지안는 절벽에 다다른다 여기를 [illegible]이라고 부른다 [illegible] 부처지안코는 어린곳의 땅 [illegible] 부물을모르는 [illegible] 을 그대로발견한지도 몇해안되는 [illegible] 이 벌서 [illegible] 냄새를피우고잇슴에는 [illegible]

[illegible] 여기서부터 절벽을 내려가게 는 [illegible] 석다리를 세워두엇다 진흙에빠진 [illegible] 석마대기가 잇그헤위 자칫하면 [illegible] 절벽에서그대로 떠러질듯하야 [illegible] 다리를조심스럽게 끄을고 간신히석다리를 내려와서니 동굴(洞窟)이훤 선열리고 [illegible] 곳이잇다 여기는 벌서 [illegible]

[illegible] 석순(石筍)을 [illegible] 손에들고 잇는『칸델라』의 광채추기는 [illegible] 종유석(鐘乳石)의『그로테쓰크』한 [illegible] 와 어디서나 와 어디로 올려가는지모를물소리가 [illegible] 하게 귀를 [illegible] 하는다(계속)

(사진은동룡굴속의광경과 [illegible])

獨學奮鬪한 模範青年學徒

고학하고학교선생하면서 辯護士試驗에合格

지난번 변호사시험에 응모자이백륙십여명중 합격한사람이 일곱명이엇고 그중에 조선사람이 다섯명이엇는데 그중에는 독학탑지의 승은청년파도가 잇다그는 본적을목포(木浦)부에 두고현재 전남담양군남면 공립보통학교(潭陽郡南面公普)에서훈도로잇는 박찬일(朴燦一)(三二)씨이다 씨는가세가 곤간하야경성에 올다와서 신문배달을하며지 [illegible] 하엿다 그래고 [illegible] 동경에 건너가 고학으로중앙대(中大)에 [illegible] 지난소화오년에 마치고 일본어학법과에입학하얏다가 학비관계로 중도에 고향에도라와 교원생활을 하면서독학을하야 최후의성공을한것이라한다 ◇사진은박찬일씨

軍官學校事件의 七名安州로押送

中國廣東軍官校로가려다가 名古屋警察에發覺

【安州】 안주천도교인 청년리응진(安州天道敎人靑年 李應辰)등일행칠명은명고옥경찰부(名古屋警察部)로부터 평남경찰부로호송되얏다함은이미보도된바어니와지난일일오후네시신안주착(新安州着)직행렬차로안주경찰서(安州署)로호송되얏다이제그사건내용을탐문한바에하면지난류월달에최몽필(崔夢弼)박남영(朴南英)두학생이동경(東京)에서류학을하던중중국광동군관학교(中國廣東軍官學校)입학을목적하고떠나가던도중명고옥(名古屋)에서체포되야취조를진행하던중 안주에잇는 김지옥(金址玉)주용렬(朱鎔烨)등과도련락이잇서서 동행키로 약속들이잇섯슴으로 김지옥은 안주서에주용렬은평양서에각각검거되얏다가 그들청년들과 친분이갓갑다는 리응진을아울러 명고옥으로호송하얏스며 동경학생들도 십여명이나 검거되야 취조를밧다가 대부분은석방되고 그들의길을 지도하얏다는 김현국(金鉉國)과 그를 호송하얏다는 현인식(玄仁植) 등만명고옥으로 호송하야 취조중이든바 일행칠명은평남경찰부를거처 다시 안주서로호송되얏다

朝滿各地를連絡 數十萬圓阿片密輸

新義州에서五十餘貫을押收 京畿道警察部猛活動

경기도경찰부형사과에서는 대규모의 아편밀수단이 만주와조선을 두다리사히에걸터고 수십만원의 아편을밀수하고잇는 사실을탐지하고 삼십일일아츰 신의주(新義州)에 수배하야 그곳조선운송지점에 압치되고잇는 고무신궤짝두개를 차압하는 동시에, 그것을차즈려온 함북출생의 김영호(金永鎬)(假名)라는청년을검거하엿는데그궤짝은아편오십관이마원가량 어치가 드러잇는것이라한다 그들은 길림(吉林)안동현(安東縣)봉천(奉天)합이빈(哈爾賓)등지에 각각련락원을두고 교묘하게 수십만원어치를밀수하고 잇는것을 일일오후다섯시 경성역발 열차로 경기도형사과의 오(吳)형사 외일명의형사는 급히길림으로 향하야출발하엿는데 사건은 상당히확대될모양이다

武器도精巧한 組織的兵團

【哈爾賓三日發聯合】 북철남 [illegible] 국인이 [illegible] 실내지심오의부하를가진두목의 [illegible] 된 도병인데 [illegible] 중재를가지고 독일제와『크루』 [illegible] 제롱의정교한무기를가진극히조직적인것으로『갈빈』시내에 [illegible]

莫斯科秘密指令 本據의表裏를論述

張會建等卅五名의太勞事件 昨日咸興法院서開廷

【咸興支局三日電話】 제이차태평양로동조합사건의 관계자 장회건(張會建)등삼십오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위반등 피고사건은 삼일오전열시이십오분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어원생(御園生)재판장, (고구, 민량판사배석)대판(大阪)검사의 당입으로 제일회공판이 열렷다 피고들에게 한주소, 성명, 년령, 직업등을 일일히 무른뒤에 이사건의 수령격인 장회건부터 심리를하게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구월테제』와『상월서신』의 내용에 대하야 예심결정서와 가튼것이냐하매 피고는

대체에 잇서서 가튼것이다그글자는 국체변혁(國體變革)을목적함이아니고 뿌르조아 민족주의에 대한당면의문제인 로동자독재정치를 실행하려한것이라

고하야 약십분동안재판장과 문답이 잇섯다

그러고 다음으로 일천구백삼십년팔월십오일로부터 그달삼십일까지『모스크바』에서 열린『푸로핀테른』제오회대회에 조선대표로 출석하야『구월테제』를기초작성한일이 잇느냐고 무르매 피고는

대표로간다면 로동운동자가선발하여보내야 대표되는것인데 자기는대표로간것이 아니고개인으로참석하엿노라고 대답하얏다 또『푸로핀테른』서기국(書記局)의 지령을바더 인천(仁川)에서 ××적로동조합조직에 활동한사실과 일천구백삼십일년십일월에 태평양로동조합재건을 목적하고 좌익로동조합과교통로동조합을 련결하야 ××적로동조합을 조직하려 홍배식(洪培植)등수명과 결의활동하엿느냐하매 그는

좌익로동조합은 이미 잇섯든것임으로 그것을 다시 조직할려한것이아니고 다만 합류 시킬려하엿든것이라고 대답하엿다 피고장회건과 다른피고들과의관계에 대하야 다른피고들도 역시 사유재산부인과국체변혁을한사실은 전연 알지못한다고변명하엿다 열두시에 휴게하엿다가 오후한시에 재개하야 장회건에대한 심리가 끗나고 그다음으로 박세영(朴世榮)에 대한 심리를 끗내고 오후두시삼십오분에 폐정하엿는데 속행공판은 오는십일에 열기로되엿다

陸上의王者 養正軍歡迎의밤

場內는凱旋氣分橫溢

조선의 젊은이를 대표하야멀리 현해탄저편에건너가그곳의강호를 스포-츠로써 넓리선양한 양정륙상개선군(養正陸上凱旋軍)을마지하야 조선체육회, 고려륙상경기협회, 서울륙상경기련맹의 주최로 열린양정개선군『환영의밤』은작삼일밤여덟시부터 시내장곡천정공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엿다

정각에 고려륙상경기협회 부회장 주홍근(朱興根)씨의 사회로서 개회되여 개선군의 감독김수기(金守基)씨를 선두로선수아홉명은 만장관중의환호와박수의에워싸한얼굴을나타내엿다

이리하야 조선체육회 상무리사 김규면(金圭冕)씨의 개회사가 잇슨후 천진란만한 한순이(韓順伊)양이 선수아홉명에게 월계환(月桂環)을 일일히 증정한 후 리순갑(李順甲)양의 독창이 잇고류해봉(柳海鵬)군의선수소개, 리길용(李吉用)씨의 양정륙상경긔사소개에 니어서 고려륙상경긔협회장 유억겸(兪億兼)씨와 본사함상훈(咸尙勳)씨의축사, 안보승(安輔承)씨의독창이 잇슨다음 개선선수를대표하야 주장 리을형(李乙炯)군의답사와감독김수긔(金守基)씨의개선소감등의 순서로써 개선긔분이 장내를 휩일한가운데 동열시경성황리에 산회하엿다(사진은양정개선군환영식광경)

大安丸屍體發見

【安東縣三日發聯合】일일밤진남포(鎭南浦)로부터안동현에온 잠수부일행여섯명은이일아츰에 대안기선공사(大安汽船公司)의 배안남환(安南丸)으로 침몰현장 [illegible]

槿花女校生率先하야 水害義捐金을醵出

신학기공부시작하는첫일로 二十八圓餘를本社에寄托

시내안국동(安國洞)에잇는재단법인 근화녀자실업학교(財團法人槿花女子實業學校)에서는개학한이래로 생도들이 삼남수재동포의정경이 신문지의 보도를 동하야 보기만하야도 그러듯참담할때야 실지의곤경이야 더말할수업슬것이니 도저히 그저잇슬수업다하야 학교에수업료납입수속과 의용품 구입절차도모다 뒤로밀우고 의연금부터자발적으로 모든절과 다른학교에비하야 학생수효가 만치못함에도 불구하고현금이만히모엿는데일방학교직원들도시급한동포의재난부터구하는것이무엇보다올흔일이라고공명하고직원측의의연도것고 생도측의편의도 보아주어총계이십팔원 사십전이 모엿는데 이를삼년급학생대표리광평(李廣平)김무한(金戊漢)리창숙(李昌淑)의 삼양이 본사를 방문하고 전달할것을 긔탁하얏는데녀자 중등학교로서의 의연은이것이시내에서두번재이다

【사진은 의연금가저온학생右李廣平 中金戊漢 左李昌淑】

長薰普校生과 養英學校生들

精誠된義捐을거둬

시내장교정(長橋町)삼십구번지에잇는 장훈(長薰)보통 학교에서는 직원과 아동일동이이번삼남수재 동포의의연금 으로현금십오원 구십오전을 거두어삼일에학교 명의로 본사로가저왓다 시외 고양군계양면화리(高陽郡桂陽面禾里)에잇는 양영학교(養英學校)직원과생도일동은역시현금삼원오십전을 거두어 본사로 긔탁하고 수재동포에게전달하야달라고하얏다

神溪、神興寺서 各各同情

삼남수재의 동정금은 심산유곡의절에서도 본사로 련속적으로 의탁하야온다, 외금강(外金剛) 신계사(神溪寺)에서 현금이십일원구십륙전과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襄陽郡道川面)의신흥사 종무소(神興寺宗務所)에서현금 십륙원을 각각리재민 동정금으로본사에 탁송하야왓다

會寧紅裙黨美擧

十餘日營業全廢코募捐

수십년이래로 첫기록인 금번삼남수해로 말미암아사십여만 물상한생령을위하야 회녕 지방에서는학림관(鶴林舘)주최와조선 동아조선중앙 (朝鮮、東亞、朝鮮中央)세지국의 후원으로 수해구제기생연주회(水害救濟妓生演奏會)를 지난칠월일일간개최하엿스며 개최당시 일반인사들의 눈물겨운동정금은 일백사십여원에 달한다하며 동정금은 후원한 세지국에 사십륙원십팔전식의탁하엿다 금번기생일동은영업을 십여일간전폐하고 활동함에일반은 감격하지 안은자업다한다

大昌織物會社 卅圓을義捐

본사로보내

시내래동(徠洞)에 잇는 대창직물회사(大昌織物會社)공장에서는 종업원일동이 현금삼십원을 거두어 역시수재동포에게 보내달라고 본사에긔탁하얏다 로본사에 탁송하야왓다

百圓捐出

『스마일』本舖 玉置會社에서

동경시본정(東京市本町)일정목에잇는 안약『스마일』본포 옥치합명회사(玉置合名會社)사장옥치금팔(玉置金八)씨는이번삼남수해 동포에게 보내달나고현금 백원을 본사로 보내서긔탁하엿다

丁茶山記念講演

朝鮮學界의至寶 九月八日基青會館에서

시내황금정 이정목 이십이번지에 잇는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는 조선의지보요 학계의유일한정다산(丁茶山)선생의칠십여권의 방대한 전집을간행한다함은임이 세간에 널히알리여진바이나 금년이선생의 이세상을떠나신지 구십구년임에 해당할뿐만이안이라 신조선사가 이사업을 기렴하는의미와 또한정다산선생을 일반에게 소개하기위하야 오는구월팔일오후팔시에 시내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사계의 권위를 망라하야근래에업는 대강연회를 개최한다 그연사와 연제는아래와가트며 특히당야에는 입장무료라고 한다

演士와演題

一、茶山先生과朝鮮學 鄭寅普
一、朝鮮史上의丁茶山의地位 安在鴻
一、未定 文一平
一、李朝儒學과茶山先生 玄相允

中國共產黨員 柳海建送局

【平壤支局三日電話】 작년십이월에 평양경찰서에 붓잡혀이래십개월동안이나 장구한시일을두고 취조를밧고잇든 중국공산당원 황해도신천(信川)출생 류해건(柳海建)(二九)은삼일에치안유지법위반, 살인, 강도죄등의혐의로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넘어갓다

補回戰에드러가 7—4 殖銀勝 釜山惜敗

第三夜戰 殖銀對釜山鐵道戰은 三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殖銀先攻으로 開始、兩軍모다優勝候補임인만치 께임은 極度로緊張한가운데 進行되여 九回까지에 四對四同點으로 延長戰에드러가 十二回初에 殖銀李榮敏君의 安打奏効하야 一擧三點을奪還하니 結局七對四로 殖銀勝捷하엿다 閉戰六時五十四分

釜	1	0	0	0	2	0	0	1	0	0	0	0	4
殖	0	0	0	0	3	0	1	0	0	0	0	3	7

7—4

【釜山】	釜山		殖銀	【殖銀】
6朴鮮和	45	打數	48	4田原
4畑中	4	得點	7	8中島
8石橋	10	安打	10	7李榮敏
2佐田	1	犧打	2	9松本
9小林	0	盜壘	1	3內牧
5李尙文	4	三振	3	6保田
7八幡原	5	四死	2	5佐藤
3高田	7	失策	0	1林
1能勢	11	殘壘	9	2百瀨

▲試合時間 二時卅四分 ▲二壘打 保田▲三壘打 李榮敏

9…1 咸興快勝 對大邱戰

全朝鮮野球爭霸戰第二日=全咸興對全大邱第二回戰은 三日午後一時三十五分부터 咸興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九對一로咸興快勝하야準決勝戰에드러갓다

得點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大邱	0	0	0	0	1	0	0	0	0	1
咸興	2	3	0	1	0	1	3	0	2	9

今日의運動

▲野球爭霸戰準決勝戰=高麗俱樂部…平壤實業(午後一時半) 殖銀…全咸興(午後四時半) 京城球場에서

新京宮內府의 火災鎭火

【新京三日發聯合】 삼일오후한시 궁내부(宮內府)에 난불은 주방용원 휴게소(傭員休憩所) 주방(厨房)일부분을태워버리고오후한시사십분에 불을잡앗다

手巾行商하야 水害同胞同情

【利川】 리천읍에잇는조선감리교회내 엡윗청년회원들은 손수건을맨드러가지고 행상하야삼남지방 리재동포를 구제코저주야로활동중이라는데일반은만흔동정이잇기를바란다고한다

첫가을에는 녀성의게이런 증세가만습니다

자부업는것도 부인병이원인 병세를아는것은건강에첫거름

서늘한첫가을바람이불어오면 나무열매석를며 추수를기다려는이맛치 사람의 건강상에잇어서도 지루한여름더위에 쇠약되엿든몸에는 여러가지잡병이 생기는 몸이 서숙되며 재발되서 고통을주게됨으로 하로밧비 그회근을추수하여야될때입니다

더구나 연약한몸셩질을 가진녀셩들의게는 부인병이 어느절에발생 또는재발되시여잇을줄밋읍니다

가정부인은 물론이요 처녀들에게도 부인병은발생됩니다

그러나순량한녀성의미덕으로 괴로움을남에게숨기고말하기에얼골붉이며혼자서고통을참어서 부인병을 만성이되게맨드는페단이잇스며 또한 녀자면누구나다 이런증세가 잇거니하고 쓰라린세월을 보내시게되며출가하신후 아해를못나시는분은 부인병이잡복되여 아해를배시는줄을 깨닷지못하시고 다만생의 인연이적든가『팔자』라고 신세타령하고계시나참으로한심한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로밧비 만성되기전에 부인병에대한위생지식과 증세를알으서서 적당한치료와 조섭을하세야됩니다

부인병의증세

『월경』 가나고 색이변합니다 대하증 냉증이흠으며 팔다리가·몸시차며 쑤시기도하고월경때면 몸이몹시압퍼서 눕게됩니다 또한 늘두통이심하며 허리와아래배가압푸고 소화가잘안되며가슴아리가 생겨서 뭉치갓든것이아래우로치밧치고 가슴이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이생기기도합니다

『국부』 가럽거나 압프며 가려운기가 생기며 오줌이자저집니다 또한 신경과민이되여 잠을잘들지못하며 성질이 조급하여지고 혈색이낫버지며 빈혈증이생기는수가잇슴니다

『태중』 에게신분은 습관적으로 락태하시든가 또는변비증 각기증이생깁니다

『부부』 으사는분 혹은 회합에재미를몰으는분도 모도 아해를 못배시는 분도 모도 부인병이 원인되는까닭입니다

부인병에걸니면

첫재로 희색을일케되야 녀성의미려과애교가 업서지며 둘재로수를감하고 셋재로 아해를못나케맨듭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치료를하세야되나니 즉병세를아시는것은 치료에 한거름을밟으신것이므로 여러분은 그러한증세가 잇어 주저마시고 하로밧비 치료방침을차즈셔서 적절한방법을취하시기바람니다 그러면

엇더케 집에서 간단히 곳칠수잇을까

엄염히 남에게 몸을보이지도안코 곳친괴고통이 가부되는수술을안코라고 집에서 간단히 곳치는수는업슬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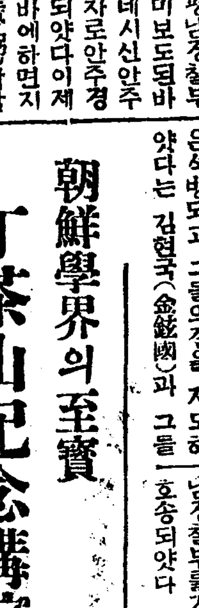
『두말』 업시 부인병약모의 대하증을 곳치는『명지모』의권위인『오기나구』를 자신잇게추천합니다『명지모』의영묘에대해서는 더말삼드릴것도 업겟지마는 부인과전문의로 권위잇는 七大博士의실험증명이래 세상에퍼진지 三十여년동안에 고질의부인병이 전쾌되시여 귀롱자를어드신분 자궁병의고통을 어즈시고부부회합의행복한생활에드러가신분 부모시하에거선처녀들이 남모르게부인병을완치하신분들의 수만흔칭찬과 감사의 환성은 이로헤아릴수업사오며『명지모』와『오기나구』는부인병치료할만안이라 월경전후와산전산후에잇자못할 강심보혈제이오며 태아의건전을위하고 한 실영님이되고 또한녀셩의『미용』의회생극구세주가됨에는 더욱 탄복안이할수업습니다 또한시 복하여보시면 아실것이마는 새롯는얼골 알품이개이여가는데는 그어대리감이나 효과와 회리요! 『명지모』에는 경중에 쓰는보통명지모(十三일분一원 卄일분三원) 한약으로된 『증세명지모』(十一일분一원十七일분三원) 가잇는데 각종에따라 各號別로된『가감명지모』(三주분三원五十전·三주분五원) 대하증을외부로곳치며 국부의 압품을곳 개이게하는『오기나구』에도 경중용(十七일분二원卄七일분三원)중증용(보방오기나구=十一일분 三원卄일분五원)의구별이잇으며 병구료는 四十二전이온데 남과것등 행복을어드다스려 실여린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한시도빨이

東京市京橋區入舟町
命の母本舖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독자여러분께

명지모본포에는『조선어문부』가설치되야잇서서 조선국문의 편지로도 [illegible] 하시면 [illegible] 부인병신독서(一百四十四頁) 와남편되신분이꼭 보서야할참고서류와명지모·오기나구의실험감사장사진등만 한 귀중한서류를『거저』드림니다(사진설명=평남순천읍 [illegible] 내예사지는김성도씨의따님이오니 명지모와·오기나구로병을어로다년의부인병이전쾌되야 드신귀중녀입니다 깃븜에와 하나이나마여러분과가려 나누는바입니다


(記事參照)

全北警察員來殷
青年一名檢擧
某重大事件에關聯?

【殷栗】 황해도 은률군 상연음에는 재작년 오후부시경에 전북경찰부 세천(細川) 경찰서의 응원을어더 장련승동부리에서 뭇장뀌학생 홍대모(洪大模)군을 검거호송하엿다는데 듯는바에 의하면 치안유지법위반인모중대사건인듯하다한다

榮州에서
中堅婦人講習

【榮州】 지난이십구일에경북영주군에서는 대구녀자고등보통학교교유 임숙재녀사를 초빙하여다가 영주군내 각부인회원의 중견인물강습회를 영주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하엿는데 회원은 무려수백명에 달하엿스며 강습의과목은 제일일에 주부의 사명인 강연과 계막부제실습이며 제이일에는새맥방 염색등이며 제삼일은 파의여각종강연회가잇다한다

第一回全仁川
包裝紙展覽會
仁川公會堂에서

【仁川】 지난구월일일부터삼일간 부내공회당에서 만주상공미술협회주최로 전인천 포장지전람회를 개최하얏는바 총점입백십구점으로 멀니신경(新京)동시에서 찬조출품이 잇서서 대성황을 일우엇다는데 대전(代田)심사장대리의심사한결과 입상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一等 松浦元三 二等中川勝美堂 三等吉田洋品店 四等 高杉藥種店 五等 北島藥房

借地人反抗으로
家屋撤毁中止
今後의進展이注目處
箕林里借地料問題

【平壤】 평양부내각처에서는 차지료와 지가(地價)문제로 지주대차지인사이에 분규가 끗칠날이업서 평양의중대 사회문제로화하고잇는터인바 더욱이최근에는 긔림리차지인조합 대지주의항쟁은아조큰문제로화하여긔림리김찬서(金燦瑞)방창범(方昌範)량씨에게 지주 장동환(張東植)씨가법적수속을 밟아가옥철거를청구하엿스나량차지인은여기에 응치안을뿐안이라 최후까지싸호기로 태도를 결정하엿다는데 이소식을들은 긔림리차지인조합은 물론 경창(景昌)신양(新陽)만수(萬壽)등사개차지인조합 삼십여명이 집을헐기위하여 일일정오경에 지주대리장봉빈(張鳳彬)이 가집달리(執達吏)와 인부두명에게 집허는도구까지둘니어가지고 오는것을 긔자농압도로에서맛나 반대 시위를하자 장봉빈과 인부는다려나고 말엇다

이황미잇는싸홈을구경코저모혀든군중은삼백여명에달하여일시는대소동을연출햇고대동서에서는경관수명을파견하여경계하여스나 지주가달어 나기때문에 큰문제까지는 일으지 안엇다압흐로 이문제는 엇더케해결될지 을는지 주목을끄을고 잇스며차지인측에서는 어떠한희생을 당하든지 최후까지 항쟁을계속한다고하야 형세는점차험악화 하고잇다

勉勵節制兩會聯合
懸賞節制雄辯會
五日午後於西門外教堂
本報平壤支局後援

【平壤】 전조선면려회사년대회와 조선긔독교절제회의 련합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일오후두시반 평양서문외 례배당에서 현상절제웅변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엇다 면려회대회에참석한 이천오백명 교도이외에기타 방청자도 다수히참석하게슴으로 일즉이 보지못한대성황을 일우게될것으로 예측되는바 심판은박헌룡 (朴亨龍)곽진근(郭震根)김필례(金弼禮)리성휘(李聖徽)채필근(蔡弼根)주긔철(朱基徹)우호익(禹浩翊)씨등일곱분이라한다

協成學院의
增築記念事業

【開城】 개풍군청교면덕암리에잇는 협성학원(協成學院)은 농촌무산아동의교양긔관으로서 만흔 역할을해나아감은 세상이다아는바어니와 금년봄에는 교사를 증축하야 아동교양에더욱로력중인데 오는십륙일에는 교사증축긔념식과 제사회 운동회를 성대히거행하리라고 한다

地方人事

▲齋伊三郎氏(論山警察署駐在所部長) 警部補陞差公州警察署榮轉人事次八月三十日本報論山支局來訪

▲許承河氏(元山光明普通學校學父兄會長) 今般光明부리시工場設置人事次去八月三十日本報元山支局來訪

▲金仁默氏 今般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元山出張所長으로赴任人事次去九月一日本報元山支局來訪

▲李建藩氏(本社陜川支局長)局務를帶하고二日入京

▲張仁煥氏(本社大邱支局長)同上

平壤
懸賞雄辯大會

▲時日 九月五日午後二時半
▲場所 平壤府西門外禮拜堂
◇主催 全朝鮮勉勵會四年大會 朝鮮基督教節制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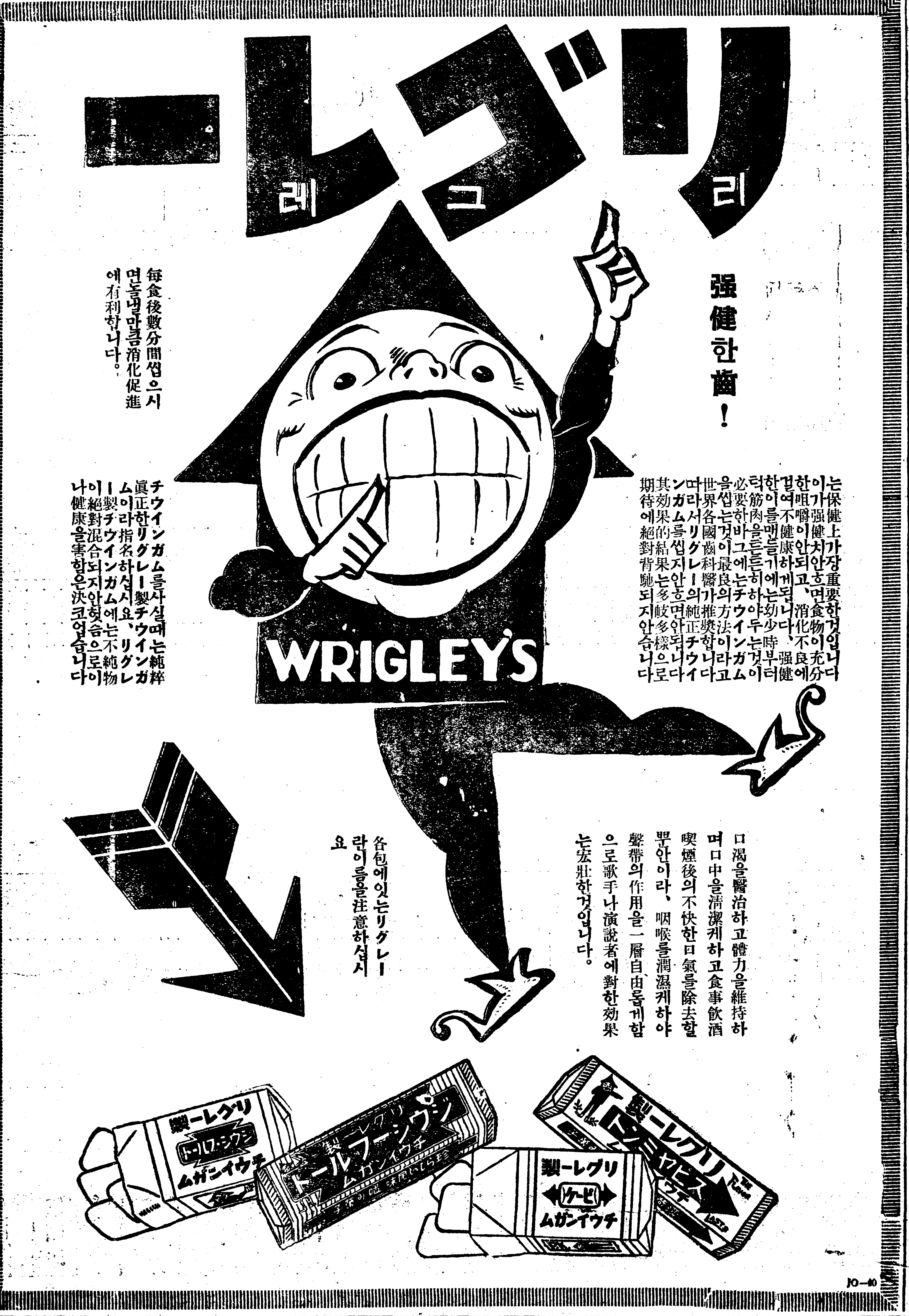
林巨正傳 (541)

洪碧初 作
安碩柱 畫

결의 (四의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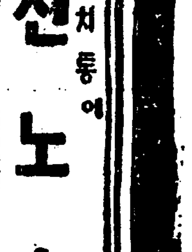
꺽정이의 일행이 진천서떠난뒤 충청도의 음성 충주두고을땅을 지나고 강원도의원주 횡성 홍천 춘천 랑천김화 평강 안협 여덟고을땅을지나고 또 황해도의 토산강음 두고을땅을 지나서청석골로 들어갓는데 진천서청석골까지 사백이삼십리길을천리갓가이 휘돌아서간까닭에날짜만도 칠팔일이 조이 걸렷다 꺽정이가 청석골 들어간뒤 이야기는 뒷날로 밀우고 진천리방의이야기를 마저할것이잇다 꺽정이가 령발([illegible])하야 「임자의첩을 내가상관햇소 미안하우」 말하는것을 들을때 리방은분이 속에 복바처올랏섯다자긔에게 사랑을 밧는 첩이사랑을 저바린것이 분하고 자긔에게 덕을본 꺽정이가 덕을몰으는것이 분하얏다 분김에 별생각이 다나는중에 꺽정이를 못늘어서 못떠나게하고 시비를 차리고시픈 생각도낫섯고 꺽정이의 가는로정을 관가에 밀고하야 체포시키고 시픈 생각도 낫섯다 꺽정이를 못듣지못하고 떠나보낸뒤엔 밀고할생각이 더럭만하얏스나 한번 돌처생각하니 꺽정이가 만일 체포되면 자긔를 죽을꾀에까지 끌고들어갈것이 명약관화한일이라 섯불리 밀고하기도 어려웟다 꺽정이게 대한 분까지한꺼 겹쳐서 첩、게 분풀이를 톡톡이하고시프나 그도역시 왜자하게할수업서서 분을 꿀꺽참고 수일동안 아무일업시 지내엇다 리방이 소견이 좁지아니하야 첩의 부정한짓한것을 용서하고 더퍼둘만도하건만 구진고거먹은것가튼생각이 끈히속에잇서서 첩을 대할때자연 눈치가 조치 못하얏다 꺽정이가 떠난뒤 사흘되든날밤에 리방이 자리에누어잇는데 첩이 여패 와서 눈치를살피면서 「다리좀 주물러드릴까요」 하고물으니 리방은 첩이달은생각이 나서 와서부니는줄로 짐작하고 「네기 더러운년 저리가거라」 하고 소리를 질럿다 첩이 얼골을 붉히고 무어라고 입속말로 좃알좃알 짓거리는데 리방이 벌떡 넘어안지며 「이년아 무얼 종알거리느냐」 하고 무지스니 첩은 리방을 빤히 바라보면서 「왜 이래시요」 하고 비앙스럽게 말하얏다 「몰어 내죽일껄 가만두니까 팽팽시프냐」 「나를 건드리지마시요 건드리면 당신께도 리로울꺼 업세요」 「서방잇는 기집년이 부정한짓하구 되려 큰소리야」 「도둑놈 들을 집에 두지말지」 「이년이 죽구시픈가」 「내입한번 뻥긋하면 죽을사람 따로잇지」 리방이 분에 눈이뒤지펴서 첩의머리채를 움켜잡고 들두들기니 첩이 바로 「살인이야 살인이야」 하고 외치엇다 행랑은 아직 비엇고 이웃은 모다 멀어서 쪼차올사람이 업고 집안에잇는 어린년이는 어느구석에가 숨어잇는지 귀척도업섯다 리방이 악심이 생긴끄테 벽장속에잇는 적은환도를 끄내어서 첩을 찔르고 한번 피를본뒤에 미친사람이 다되어서 첩을 란도질하야 죽이엇다 리방은 그날밤에 집도버리고 구실도 버리고 정처업시 도망하야 나갓다

진천 살인옥사에 원고도 업고 원척도 업고 오직 증인하나가 잇섯스니 이것은 어린년이엇다 청석골회적의 괴수색이 리방의 첩의집에서 거의 한달동안이나 숨어잇다간것이 어린년이 초사에 들어낫다 리방을 잡으랴고 각처에 이문을 부첫스나 마침내 잡지못하고 해포 지나서 살인옥사를 그대로 결말 짓게되엇는데 그때 리방을 회적의패당으로 몰아서 가산은 적몰(籍沒)하고 기집과 딸형제는 관비를박고 꺽정이 이하 회적괴수들을 숨겨두엇든집은 파가저택(破家瀦澤)하얏다 오늘날까지 진천읍밧게 늪으로 남아잇는 그집터를 세상사람이 꺽정이의 집터라고 널커르나 실상은 꺽정이가 잠간 와서 묵든 집터일뿐이다 (의형제편)、(끗)



저元氣 저精力 壯하다

두통치통에 진노ー



九月二日낫부터公開 [illegible]
카바리아 全七卷
眞夏의夜夢 全七卷
軍法會議 全七卷 監督 조지빠사ー잇氏 主演 찍크폴드氏
次週 낫잡을수업서
桃花劇場

九月四日낫부터三日間 二大特選名畵大公開
每日二回낫一時밤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따라마운트社超特作品
喜活劇 亂暴로ー지 全七卷
名優구라라•보ー主演
痛快하고시원스러히興味잇는로지의活躍을보고드르시라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畵 銀座의버들 全十二卷
田中絹代、竹內良一主演
참、이거야靑春들의가삼을쓰리게하여주는참興味잇고도興味잇는名篇을보시고드르시라
感想업시야보실수잇슬가요
次週現代名畵[illegible]十二卷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七千七百三十二圓十四錢
物品累計 七萬一千四百八十六點

一金三十圓 今洞 大昌織物株式會社從業員一同
一金二十四圓四十錢 安國洞 槿花女子實業學校生徒一同
一金二十圓 中國北平東城金魚胡同十五號 亞細亞大藥房一同
中國北平南池子大街五九號 桐谷醫院一同
一金十五圓九十五錢 長橋町 長薰普通學校職員及生徒一同
一金八圓 壽松洞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寄宿舍生徒一同
衣類八點 武橋町三〇 朴敬植
衣類二點 武橋町三〇 金潤洙
衣類二點 武橋町三〇 鄭連哲

本社仁川支局經由分

一金二十一圓五十錢
衣類三十三點
內譯
三圓八十七錢 博文普通學校職員及兒童一同
九圓五十一錢 衣類三十三點 松峴里基督教會
八圓十二錢 永化普通學校職員一同

本社鳳岡分局經由分

一金十九圓五十七錢
內譯
三圓 漁大津敎會幼年主日學校生徒一同
二圓三十錢 同主日學校職員一同
十四圓六十錢 漁大津耶蘇敎會信徒一同

東大門監理敎會禮拜堂

一金一圓 衣類六十九點
內譯
三十錢 朴아이더
五十錢 盧恩信
二十錢 劉連吉
二十九點
十九點 李仁甲
四點 李윤노
九點 權重錫
八點 朴淳萬

本社朱安分局經由分

一金四圓七十四錢
內譯
三十錢 尹增
二十錢 申金廷
二十五錢 金命吉
二十五錢 韓順植
十錢 孔鎭錫
二十錢 金桂順
五錢 鄭夏永
五錢 洪萬燮
三錢 金乙駿
十錢 鄭盛旭
二錢 李康一
三錢 辛益善
五錢 洪仁基
十錢 具弘書
五錢 李相奎
三錢 韓東均
十錢 段玉順
二錢 李貞珪
三錢 成吉模
二錢 吳根錫
二錢 權承萬
二錢 吳賓燮
二錢 李康弼
十錢 孫成煥
二錢 李康鎬
二十錢 朴齊說
五錢 李仁順
二錢 洪性淑
五錢 李起馨
三錢 張奉云
三十錢 成河文
二十錢 辛養善
五錢 吳基燮
七錢 吳壽贊
十錢 金順培
五錢 李鎔新
二錢 李益宰
五錢 鄭在順
二錢 尹福童
二錢 白潤基
五錢 李鎔才
五錢 朴東錫
三錢 洪性訓
五錢 金昌善
五十錢 金鳳梧
五錢 金淑姬
二錢 李讃錫
五錢 李榮淳
三錢 李錫鎭
二錢 成信鏞

五錢 金兌榮
三錢 成河炙
十錢 金玉順
十錢 柳廣男
五錢 洪詠杓
十錢 洪敬淑
三錢 金仁應
六錢 洪性哲
十錢 金甲壽
二錢 金鍾燮
二錢 鄭孝根
十錢 吳世連

本社枇峴支局經由分

一金七圓
內譯
一圓 林時得
一圓 韓敬淑
五十錢 金泰成
五十錢 朴龍介
五十錢 鄭德彬
五十錢 白元翕
三十錢 趙重喆
三十錢 白寅紒
三十錢 朴炳元
二十錢 鄭文澈
二十錢 趙重實
二十錢 任席珍
二十錢 趙東民
二十錢 金孝成
二十錢 金萬益
二十錢 金尙松
二十錢 金泰雲
十錢 金吉明
十錢 趙時應
十錢 金昇會
十錢 裵信救
十錢 趙鳳玉

本社大田支局經由分 (第二回)

一金十七圓六十錢 (送料除錢)
內譯
五圓 梁萬枝
一圓 共榮會
三圓 勇進團
二圓六十錢 勇進夜學生 朴榮來外六十四人
二圓 東光醫院
一圓 宋漢彬
十五錢 劉泰珍
一圓 南熙會
五錢 南萬翼
一圓 東洋堂時計店
二十錢 李容植
一圓 宋寅範
二十錢 一力堂

本社朔寧支局經由分

一金三圓八十五錢
內譯
朔寧公立普通學校第三學級梁大宗氏取扱
十錢 高柄河
十錢 伊藤加壽代
十錢 朴漢永
十錢 白完基
十錢 印京玉
十錢 朴載均
十錢 朴仁均
十錢 尹錫民
五錢 朴正春
五錢 尹長男
五錢 沈相哲
五錢 謝大敬
五錢 申堯澈
五錢 全永儀
五錢 韓有鍾
五錢 車昌東
五錢 高奎源
五錢 李恩昌
五錢 李滿德
五錢 文炳鎬
五錢 鄭桂天
五錢 崔秉楠
五錢 金鍾玉
五錢 申得洙
五錢 李鎬鳳
五錢 朴正姬
五錢 朴漢成
五錢 高錫南
五錢 尹貞淑
五錢 方承烈
五錢 邵榮選
五錢 具泰龍
五錢 金仁玉
五錢 權壽諺
五錢 芮壽長
五錢 洪淳福
五錢 李昌先
三錢 金喆俊
第二學級福永晴惠氏取扱
十錢 琴在星
五錢 崔宗植
五錢 趙正任
五錢 李滿玉
五錢 玄東傑
五錢 金周鉉
五錢 金洛鉉
五錢 金德根
五錢 李淳明
三錢 李世濟
三錢 金永韶
三錢 金昌錄
三錢 梁金子
三錢 李福男
三錢 河吉鎔
三錢 崔長得
三錢 金完喜
二錢 李演錫
二錢 李俊鎔
二錢 金聖煥
二錢 梁文暎
二錢 李喆洙
二錢 具吉成
二錢 崔秉九
二錢 韓鍾圭
二錢 李炳先
二錢 玄熙仁
二錢 崔秉善
二錢 李龍雲
二錢 鄭有喆
二錢 崔秉熙

二錢 第一學級金融氏取扱 李光玉
五錢 尹龍非
五錢 金振聲
五錢 玄弘洙
三錢 張興業
三錢 崔大敬
三錢 具長壽
二錢 金一成
二錢 白重石
二錢 印如玉
二錢 印在玉
二錢 盧貞烈
二錢 李順和
二錢 李靄雨
五錢 朔寧幼稚園兒(四人分) 李丙俊
五錢 李榮順
三錢 盧貞伍
二錢 琴在源

本社昌城支局經由分

一金十七圓四十五錢 (送料除錢)
內譯
一圓 許洋
五十錢 李燮
五十錢 高明厚
三十錢 李得燁
三十錢 朴普敬
三十錢 姜丁祖
五十錢 朱永植
五十錢 協泰昌
五十錢 共合園
五十錢 新成魚店
五十錢 羅璣煥
五十錢 康宗默
五十錢 金榮淳
五十錢 許義之
昌城中岩門岩金山
一圓 金昌淳
一圓 權衡銓
五十錢 張秉鍵
五十錢 林昌蓮
五十錢 姜利鏞
五十錢 金承赫
五十錢 姜潤鏞
五十錢 玄巡黑
五十錢 田治德
五十錢 金聖培
三十錢 高承藥
三十錢 朴孝順
三十錢 孫正模
三十錢 梁在河
二十錢 崔鳳官
二十錢 李健淳
二十錢 李奉辰
二十錢 安允洽
二十錢 吳澤奎
二十錢 金樂洞
二十錢 朱瀅鎔
二十錢 李秉模
二十錢 姜健用
十錢 李枝順
十錢 李夢吉
十錢 趙孝信
十錢 金明吾
十錢 林河龍
十錢 李尙柱
十錢 金永順
十錢 林昌秀
十錢 許翊周
十錢 李秋香
十錢 元應杜
十錢 金景三
十錢 洪昌善
十錢 金京武
十錢 崔昌彦
十錢 趙燦楨
二十錢 崔鶴泰

本社載寧支局經由分 (二回)

一金二十九圓八十六錢 (十九人分)
內譯 白米五斗八升
十一圓四十一錢 載寧留學生學友會
二圓 黃基善
一圓 趙蓮紅
一圓 金學成
五十錢 崔天錫
二圓 裵學模
二圓 裵明周
五十錢 裵錫鉉
一圓 裵泰健
五十錢 裵秉周
五十錢 裵承周
三十錢 裵錫坤
二十錢 裵應煥
二十錢 裵泰彬
五十錢 裵福善
二圓 康弼文
五十錢 康弼坤
二十錢 康潤夏
十錢 康弼彦
五十錢 金範洙
十錢 張順英
十錢 姜仁煥
二十錢 梁鳳祚
二十錢 郭斗善
二圓 郭祐善
二十錢 禹炳喆
十錢 李德興
十錢 金昌鉉
二十錢 金汝雲
二十錢 李健姞
米三升 林寬炯
米四升 金在元
米三升 金鼎九
米五升 金相燁
米五升 金鎭燮
米二升 洪性文
米二升 金在鎭
米二升 金相淳
米一升 金在弘
米三升 金容元
米三升 金龍河
米二升 金光燁
米三升 崔膺根
米五升 金殷燮
米五升 金學燮
米二升 金達介
米二升 金容鎭
米一升 金達亨
米五升 金斗璟

本社白川支局經由分

一金二圓八十錢
內譯
一圓 金先孫
五十錢 朴昌均
一圓 韓興洋服店
三十錢 蓮南里 文字普及生一同

本社咸安支局經由分 (第二回分)

一、精麥三叺三斗七升
一、大麥十八叺六升五合
一、白米四升
內譯
精麥一升 李渭守
精麥二升 趙鏞守
精麥一升 趙鏞必
精麥一升五合 裵守鳳
精麥一升 李又碩
精麥二升 李玲
精麥一升 趙鏞正
精麥一升 趙壬守
精麥 趙東奎
精麥三升 趙昌濟
精麥四升 趙井奎
精麥二升 趙性學
精麥四升 趙性希
精麥二升 趙性鑄
精麥二升 趙賢壽
精麥二升 趙点震
精麥一升 趙殷植
精麥五升 趙鏞壽
精麥二升 趙淸奎
精麥二升 趙性尙
精麥二升 趙性采
精麥三升 趙鏞光
精麥一升 趙定奎
以上은郡北面下林里分
精麥三升 趙賴來
精麥一升 趙鏞仁
精麥三升 趙學來
精麥一升 趙孟濟
精麥一升 趙性五
精麥一升 趙必濟
精麥一升 郭蓮準
精麥一升五合 趙命濟
精麥一升 趙信濟
精麥三升 趙碩濟
精麥二升 趙鳳濟
精麥一升 趙性態
精麥一升 趙寬濟
精麥三升 趙性貞
精麥一升 趙聖來
精麥一升 趙述濟
精麥三升 趙永來
以上은梁谷分
精麥二升 趙鏞哲
精麥一升 趙鏞甲
精麥一升 趙炳奎
精麥一升 趙鏞成
精麥二升 趙鏞汝
精麥三升 趙鏞龜
精麥一升 趙季奎
精麥三升 趙明奎
精麥一升 趙鏞洛
精麥一升 趙鏞出
精麥三升 李大變
精麥一升 趙鏞述
精麥二升 李義變
精麥二升 李權浩
精麥一升 李榮變
精麥一升 田外成
精麥一升 趙鏞武
精麥五升 李仁變
精麥一升 趙甲濟
精麥一升 趙鏞浹
精麥二升 趙環伊
精麥一升 沈三甫
精麥一升 趙鏞電
精麥一升 田興成
精麥一升 趙鏞必
精麥一升 趙成贊
精麥一升 趙鏞守
精麥一升 趙福奎
精麥四升 趙萬濟
精麥一升 趙正奎
精麥一升 金應泰
以上은郡北面[illegible]分
精麥一升 趙時用
精麥一升 金在龍
精麥一升 李正淑
精麥一升 金容祚
精麥一升 金明休
精麥一升 尹千用
精麥一升 尹在石
精麥一升 朴甲增
精麥一升 朴永道
精麥五合 金錦用
精麥一升 金容珠
精麥五合 安正洙
精麥三升 金珪淳
精麥五合 趙鏞達
精麥五合 徐千石
精麥一升五合 趙鏞正
精麥五合 趙性禧
精麥一升 金鍾斗
精麥一升 趙宋奎
精麥五合 安商玉
精麥一升 李元宅
精麥五合 徐渭周
精麥五合 李元圭
精麥一升 李良守
精麥一升 鄭敦伊
精麥一升 李任善
精麥一升 趙鏞壽
精麥三升 趙小甲奎
精麥一升 趙康濟
精麥一升 趙允奎
精麥一升五合 趙性介
以上은郡北面元[illegible]村分
大麥二升 黃鳳相
大麥五升 金鍾源
大麥一升 洪順范
大麥五升五合 趙文守
大麥一升 朴聖道
大麥一麥 李炯燮
以上은郡北面德岱分
大麥一升 趙景濟
大麥一升 沈相祚
大麥一升 趙七奎
大麥一升 李碩鳳
大麥二升 趙學濟
大麥一升 朴性淩
大麥一升 李庚大
大麥一升 趙且世
大麥一升 朴希守
大麥一升 許允伊
大麥一升 李眞告
大麥二升 洪且述
大麥一升 李根伊
大麥四升 安相奕
大麥二升 文千同
大麥一升 趙鏞柱
大麥一升 金鶴文
大麥二升 趙判濟
大麥一升 沈道祚
大麥一升 朴順今
大麥一升 趙鏞福
大麥二升 朴永軫
大麥二升 趙奇奉
大麥一升 趙性大
大麥二升 田鍾秀
大麥一升 辛律植
大麥一升 趙鏞贊
大麥一升 金述祖
大麥一升 趙海勝
大麥一升 辛容禎
大麥一升 沈海石
大麥一升 朴時連
大麥一升 趙性俊
大麥四升 辛容璹
大麥一升 尹德性
大麥二升 洪鍾奉
大麥二升 趙再敬
大麥一升 沈海雲
大麥一升 趙鳳奎
大麥一升 李用善
大麥一升 林學彦
大麥一升 趙性文
大麥一升 沈永秀
大麥五升 卞在眞
大麥一升 趙甲介
大麥一升 安用伊
大麥一升 李熊佛
大麥四升 李相九
大麥二升 趙鏞麟
大麥四升 趙性濟
大麥一升 安鼎三
大麥一升 趙快鳳
大麥一升 裵順用
大麥七升 趙鏞敬
大麥二升 趙性範
大麥一升 洪相道
大麥一升 金景時
大麥二升 朴相道
大麥一升 鄭希善
大麥一升 趙應濟
大麥一升 文貴伊
大麥一升 金鍾漢
大麥一升 洪鍾達
大麥一升 裵鍾俊
大麥二升 洪鍾萬
大麥二斗 趙鏞均
大麥一升 陸道岳
大麥一升 崔相俊
大麥二升 李鶴守
大麥一升 崔春和
大麥二升 趙正奎
大麥一升 朴碩伊
大麥一升 裵鵬孝
大麥一升 金又寬
大麥一升 李尙今
大麥一升 趙允大
大麥一升 趙鏞國
大麥一升 姜象記
大麥一升 金奉文
以上은郡北面新昌分
大麥一斗 趙性洙
大麥一升 趙文奎
大麥二升 李興成
大麥二斗 趙連奎
大麥一升 趙洪濟
大麥一升 趙鏞國
大麥二升 安正中
大麥二升 趙鏞末
大麥二升 趙鏞克
大麥一斗 趙昌奎
大麥二斗 朴鼎煥
大麥一升 趙曾來
大麥四升 趙炳奎
大麥一斗 李在善
大麥二升 趙得奎
大麥一升 李六萬
大麥四升 吳爽煥
大麥二升 吳哲煥
大麥四升 趙萬奎
大麥二升 吳秉龍
大麥一升 安興根
大麥一升 吳自中
大麥二升 李鉉權
大麥一升 趙斗萬
大麥二升 趙魯奎
大麥三升 趙又濟
大麥一升 李鉉斤
大麥二升 趙鏞俊
大麥一升 趙鶴來
大麥二升 趙正來
大坤二升 趙外萬
大麥五升 趙聖奎
大麥二升 趙小大
大麥一升 金相坤
大麥二升 李皐鉉
大麥二升 趙鏞浩
大麥一升 李根浩
大麥二升 申舜直
大麥一升 申衡均
大麥二升 朴尙伊
大麥二升 金美之
大麥二升 金萬坤
大麥一升 趙快濟
大麥一升 金坤
大麥一升 趙鏞中
大麥一升 申性均
大麥二升 金道俊
大麥五升 趙鏞秀
大麥二升 趙鏞奇
大麥二升 李性蕙
大麥二升 趙炳奎
以上은郡北面元舍村分
大麥四升 李杆
大麥一升 朴宗外
大麥一升 趙弼濟
大麥一升 趙鏞俊
大麥二升 李泰祐
大麥二升 朴洲晩
大麥二升 趙海奎
大麥二升 趙鏞康
大麥一升 李東炎
大麥一升 朴武洪
大麥二升 洪在錫
大麥二升 李泰夏
大麥二升 趙鏞出
大麥二升 趙鏞基
大麥一升 趙鍾濟
大麥四升 趙鏞達
大麥二升 金周錫
大麥三升 趙鏞鈍
大麥二升 趙河奎
大麥一升 鄭龍安
大麥一升 趙点守
大麥一升 趙英濟
大麥五升 洪基鍾
大麥四升 洪基贊
大麥三升 洪鍾植
大麥二升 洪鍾源
大麥一升 趙洪俊
以上은郡北面二鍛分
大麥五升 趙鏞聖
大麥四升 金元瑞
大麥一升 金元一
大麥二升 朴基祿
大麥五升 趙鏞稷
大麥四升 朴大鳳
大麥二升 朴石香
大麥五升 朴魯業
大麥五升 金性業
大麥一升 朴必守
大麥三升 朴甫用
大麥二升 朴基禧
大麥四升 朴基祐
大麥一升 朴舜祚
大麥三升 具大宋
大麥二升 具載敬
大麥一升 沈永澤
大麥二升 金學用
大麥四升 朴東燁
大麥一升 金達之
大麥二升 朴順伊
大麥一升 白虎仁
大麥二升 白英基
大麥二升 白龍大
大麥三升 金伯坤
大麥一升 洪一圭
大麥二升 洪在琦
大麥四升 洪在福
大麥二升 李龍振
大麥二升 朴相道
大麥一升 金且坤
大麥一升 朴贊五
大麥五升 洪在云
大麥一五升 洪在河
大麥二升 車德煥
大麥一升 朴正鉉
大麥二升 趙尙奎
大麥二升 朴点祥
大麥一升 李英盛
大麥五升 崔華祚
大麥五升 朴在松
大麥二升 李雄伊
大麥一升 李又雄
大麥二升 李在宇
大麥一升 鄭濟祚
大麥一升 鄭甲生
大麥二斗五升 鄭俠伊
大麥四升 鄭大述
大麥一升 鄭成俊
大麥一升 鄭元大
大麥二升 鄭鶴柞
大麥二升 鄭且敬
大麥二升 鄭南弘
大麥四升 鄭斗尙
大麥二升 鄭大根
大麥二升 鄭又弘
大麥一升 明爲萬
大麥四升 鄭錫龍
大麥二升 洪景圭
大麥二升 洪相大
以上은郡北面烏谷分
大麥四升 安根鎬
大麥五升 鄭文植
大麥三升 沈宗變
大麥二斗 金東八
大麥四升 李元植
大麥二升 洪在凡
大麥二升 李景祚
大麥二升 黃玉柱
大麥一斗 李鎭九
大麥二升 趙外益
大麥一斗 李今同
大麥一升 李景雲
大麥二升 李漢九
大麥一升 李相植
大麥二斗 金容寬
大麥四升 安權鎬
大麥一斗 羅相淑
大麥二升 安鎭國
大麥一升 羅鍾植
大麥三升 羅柄集
大麥一斗 羅柄武
大麥一升 裵介奎
大麥四升 羅嫺淑
大麥一升 羅景五
大麥一升 金德煥
大麥一升 徐甲祚
大麥四升 趙鏞喆
大麥五升 姜大亨
大麥三升 徐鍾熙
大麥二升 趙鏞旭
大麥一升 趙性稟
大麥五升 朴太鳳
大麥三升 姜桂香
大麥一升 李君七
大麥三升 姜且生
大麥五升 姜守贊
大麥三升 徐鍾祿
大麥一升 趙正祿
大麥一升 姜尙善
大麥三升 姜命大
大麥一升 姜時中
大麥二升 姜性三
大麥二升 崔學老
大麥三升 徐鍾允
大麥一升 徐鍾煥
大麥一升 姜大玉
大麥二升 崔好順
以上은郡北面小浦里分
白米四升 趙鏞式
大麥三斗二升 院北洞中

現金小計 二百十九圓七十二錢
物品小計 五百八十二點

訂正 二日朝刊發表總額二六、九三〇、一六錢은二六、九二九、一六錢의誤植이오 八月一日附東京日本種苗合資會社(金子重夫)는誤植이기此를無名氏로訂正함

探偵小說 艶魔 (79)

徐東山 作
金奎澤 畵

새로운사건 (七)

허철은 잠간 말을멈추고영호의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무슨일이 잇든지――생각잔한의외의 일이 생기더래도 절대로 남에게 알니거나경찰서가튼데 알녀서는 안되

아들에게는 이상할지 모르나 영호에게는 조곰도 이상할것이 업다。 어떠한 사건이 생기든지남에게나 경찰에 알니지말고타협을하라 한것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과거의 약점――비밀을 세상에 알니지 아니하랴는것이다。

다고그러시서서…응 참…… 그리고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고집을 세지말고 타협을하라고 그리신단말이야」

「그것뿐이야?」

「응」

영호는고개를 끄덕어렷다。 허준이의 그 아들에게 하엿다는말이 아모 속도몰으는

「그래 내가」

하고 허철은 터 계속을한다

「그건 무슨말슴이에요? 하고몰으니까인제 차차알지야 그리실줄이겟지!

영호는 한참 생각하다가결의를하고 허철에게 물엇다。

「대강은 아는터이지만 어대 자네 어린신네의 과거이약이말시 그런것을 좀 이약이해보게……아는데로 숨기지말고」

허철은 별로 주저하시도아니하고 자긔의 아는꺼ㅅ 이약이를 시작하엿다。

허철의 아버지 허준은 어려서 매우 빈곤한 가정에서 자랏다。

그러나 그는 가난속에서도 그것을서워이기고 성공하겟다는 불붓한 정신의 소유자엿섯다。

그는 열두부터 상업방면에 눈을떠 재바르게 활동을하다가△△은행의 지배인자리에까지 올나안젓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이십년전 그의나히 겨우 설흔세살때엇섯다。

그는 은행의 대주주의 두터운 신임을 바덧섯든것이다 그의 수완으로해서 은행은 매우 번창하엿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그다지 재산을 작만하지 못하엿다。――는어보담 세상사람들이 그러케 생각하엿든것이다

사실 그의 가진주(株)라고는일백주밧게 아니되고 월급도 그것을 모아가지고 큰 재산이되기에는 빈약한것이엇스니까。

더구나 부모의 유산업시 적수공권으로 실업계에 뛰어들어 애초에 목적한 돈은 모으지못하고 신망만 어덧슬뿐이니까――。

△△은행의 지배인으로 잇슨지 몃년만에 즉 지금으로부터 십사년인지 오년인지 이이전에 그는 은행의 지배인자리를 내어노코 시골로 내려갓다。

허준이가 이와가티 △△은행의 지배인자리를 내여노코 표연히 낙향을 한데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풍설이만헛다 그중에 제일유력한것은 그〃은행의 돈을 횡령하엿다는것이다。

그중거로는 그가 시골로내려가 땅도사고 집을짓고 호화스럽게 지내기 시작한것이 립증을하는것이다

그리고 몃해후에는 다시놉가하고 서울로 올나와ㅅ 큰 집을짓코 역시 배부르게 쟁활하고잇게되엇다。

그러나 만일 그때허준이가 은행돈을횡령하엿다면 그는 무사히그돈을 삼키지 못하엿슬것이다 더구나버젓하게 내노코 자긔의 명의로 토지를 사고 집을짓고 하지는못하엿슬것이다

하물며그를 신임하고 지배인까지식혀준 △△은행의 대주주인 아모는 종전보담그와 터두러운 교제를 하게된것이다。

그리하야 일방에서는허준이가큰검자자하여 남몰내 돈을 모아두엇다기도하고 또누구는 주식(株式)을대어입화수만금하엿다고도한다。

좌우간 아모런 근심도 걱정도업는 실오면이 지나갓다 그에게는 상처한 안해가 남기고간 아들허철이잇다。

재취장가를 갓섯스나 이삼년전에 그마저 죽고 지금은 독신으로 오십넘은 여생을 보내고잇다。

그가 외아들 허철을 귀애하는품은 각별하다。

원만한 무뢰와 고집은 그대로 물려주다 그의나히 지금스물여섯이로되 결혼을 아니하는것도 역시 강제식히지못하고혼자만 애달녀할뿐이다。

귀한 나룰 허혀이 늘 침울하여 근심이 떠날 그밧게는 아모런 관심과 걱정이업든 허준이가 최근 임개월동안 갑작히 침울해지고 사람이 딴시람이된듯이 성격질도 변하엿다。